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갈래복합 06 | 낙원은 가시덤불에서, 산에 대하여, 능양시집 서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AI 직전 보강



선생님, 이번 갈래복합 지문들은 자연물을 통해 삶의 깨달음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가) 작품에서 말하는 역설적인 내용이 중요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 (가)는 한용운의 시로, 소멸이 곧 생성이라는 자연의 섭리를 다루고 있어. 겨울 눈이 꽃방울을 맺게 하고, 여름의 녹음이 가을 단풍을 만든다는 거지. 즉, 고통이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희망의 전제 조건이라는 역설적 인식을 보여 준단다.



아, 그래서 제목이 '낙원은 가시덤불에서'군요. 그런데 시 중간에 "일경초가 장륙금신이 되고, 장륙금신이 일경초가 된다."라는 구절이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만물이 본질적으로 평등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적 세계관을 보여 주는 구절이야. 하찮은 풀(일경초)과 거대한 불상(장륙금신)이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돌고 도는 연기설(緣起說)에 의해 하나로 연결된 존재라는 뜻이지.



그렇군요! 그럼 (나) 작품인 신경림의 「산에 대하여」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이 시는 '높은 산'과 '낮은 산'의 대비가 핵심이야. 사람들은 보통 크고 높은 산을 우러러보지만, 화자는 마을 가까이에서 사람들과 어우러져 사는 '낮은 산'의 가치에 주목한단다.



낮은 산이 사람들의 삶을 잘 이해하고 포용해 주는 존재라는 말씀이시죠?

맞았어. 낮은 산은 이웃들에게 길을 내어 주고 쉴 곳을 제공하며, 사소한 자연물과 어우러지는 기쁨을 알지. 이는 권위적인 삶보다는 민중과 더불어 사는 소박한 삶의 아름다움을 예찬한 것이란다.



마지막으로 (다) 수필에서는 까마귀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작가가 말하고 싶은 바가 무엇인가요?

박지원은 까마귀의 색이 빛에 따라 다양하게 변한다는 점을 들어, 대상을 고정된 관념으로만 판단하는 태도를 비판했어. 본질은 고정되어 있지 않는데 사람들이 '까마귀는 검다'는 선입견에 갇혀 있음을 지적한 거지.



미인의 자태가 다양한 것처럼 시의 형식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주장과도 통하는 내용이네요. 덕분에 세 작품의 주제 의식이 명확해졌어요!

그래. (가)의 역설적 인식과 불교적 세계관, (나)의 대조적 시어의 의미와 화자의 지향점, (다)의 유추적 발상과 고정 관념 타파에 대한 주제 의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 꼼꼼히 공부해 두렴.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갈래복합 06 | 낙원은 가시덤불에서, 산에 대하여, 능양시집 서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가)

죽은 줄 알았던 매화나무 가지에, 구슬 같은 꽃방울을 맺혀 주는 쇠잔한 눈 위에, 가만히 오는 봄기운은 아름답기도 합니다. (소멸해 가는 대상(‘쇠잔한 눈’)이 새로운 생명(‘꽃방울’)의 탄생을 돕는 자연의 순환적 섭리와 봄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

그러나 그밖에 다른 하늘에서 오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모든 꽃의 죽음을 가지고 다니는 쇠잔한 눈이 주는 줄을 아십니까. (꽃의 향기(생명력)가 꽃의 죽음을 재촉하는 눈(소멸)에서 비롯된다는 역설적 인식을 통해 생과 사가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함. 이 문장과 관련하여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을 환기하고 있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구름은 가늘고 시냇물은 열고 가을 산은 비었는데, 파리한 바위 사이에 실컷 붉은 단풍은 곱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풍은 노래도 부르고 울음도 읊니다. 그러한 ‘자연의 인생’은 가을바람의 꿈을 따라 사라지고 기억에만 남아 있는, 지난여름의 무르녹은 녹음이 주는 줄을 아십니까. (단풍(가을)의 아름다움과 슬픔은 지난여름의 녹음(원인)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임을 제시하며 인과적 자연 섭리를 통찰함.)

일경초가 장륙금신이 되고, 장륙금신이 일경초가 됩니다. (미물인 풀(‘일경초’)과 거대한 불상(‘장륙금신’)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불교적 연기설과 제행무상의 깨달음을 드러냄. 위 문장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서 “‘일경초가 장륙금신이 되고, 장륙금신이 일경초가’ 된다는 것은 만물의 위계가 무너진 혼란스러운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것이다.”와 같은 옳지 않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천지는 한 보금자리요, 만유는 같은 소조입니다. (은 세상과 우주 만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만유일화(萬有一化)’의 불교적 세계관을 제시함.)

나는 자연의 거울에 인생을 비춰 보았습니다.

고통의 가시덤불 뒤에, 환희의 낙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님을 떠난, 나는 아아 행복입니다. (이별의 고통(‘가시덤불’)을 인내하고 승화시켜야 진정한 구원(‘낙원’)에 이를 수 있다는 역설적 깨달음을 통해 비극적 상황을 행복으로 수용함. 위 문장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를 묻는 문제에서 “‘고통의 가시덤불’ 뒤에 ‘환희의 낙원’이 있다는 것은 고통이 단순히 회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환희와 연결된 과정임을 역설한 것이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한용운, 「낙원은 가시덤불에서」

(나)

[산이라 해서 다 크고 높은 것은 아니다

다 험하고 가파른 것은 아니다] ([]: 산에 대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고정 관념(크고, 높고, 험하다)을 부정하며 시상을 전개함.)

어떤 산은 크고 높은 산 아래

시시덕거리고 웃으며 나지막이 엮드려 있고 (‘낮은 산’을 의인화하여 권위적이지 않고 소박하며 친근한 태도를 지닌 존재로 묘사함. ‘낮은 산’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낮은 산을 동경하여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상승하려는 욕망을 지닌다.’와 같은 옳지 않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낮은 산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높은 산을 부러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며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긍정적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산은 험하고 가파른 산자락에서

슬그머니 빠져 동네까지 내려와

부러운 듯 사람 사는 꼴을 구경하고 섰다]([]: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들과 가까이 어울리고 싶어 하는 '낮은 산'의 서민적이고 공동체적인 지향성을 드러냄.)

[그리고는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순하디순한 길이 되어 주기도 하고
남의 눈을 꺼리는 젊은 쌍에게 짐짓

따뜻한 사랑의 숨을 자리가 되어 주기도 한다]([]: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갈'과 '숨을 자리'가 되어주는 낮은 산의 이타적이고 포용적인 덕성을 구체적 행위로 제시함.)

[그래서 낮은 산은 내 이웃이던
간난이네 안방 왕골자리처럼 때에 절고

그 누더기 이불처럼 지린내가 배지만]([]: 낮은 산을 가난한 이웃의 생활상에 빗대어(직유법), 비록 걸모습은 누추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함께하는 존재임을 강조함. '낮은 산'의 역할을 묻는 문제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의 곁에서 그들을 포용하고 위로하는 존재이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눈개비나무 찰피나무며 모싯대 개썩에 덮여
곤줄박이 개개비 휘파람새 노랫소리를

듣는 기쁨은 낮은 산만이 안다]([]: 사소하고 작은 자연물들과 어우러지는 소박한 기쁨은 높고 거대한 산이 아닌, 낮고 겸손한 산만이 누릴 수 있는 가치임을 역설함.)

[사람들이 서로 미워서 잡아 죽일 듯
이빨을 갈고 손톱을 세우다가도
침녕쿨처럼 머루 녁쿨처럼 감기고 어우러지는

사람 사는 재미는 낮은 산만이 안다]([]: 갈등과 다툼이 있어도 결국은 화해하고 어우러져 사는 인간사의 '진정한 재미'와 이치를 낮은 산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줌.)

[사람이 다 크고 잘난 것만이 아니듯
다 외치며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듯
산이라 해서 모두 크고 높은 것은 아니다
모두 흰 구름을 겨드랑이에 끼고

어깨로 바람 맞받아치며 사는 것은 아니다]([]: 인간사나 자연이나 모두 크고 강한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님을 유추하여, 평범하고 소박한 존재들의 삶이 지닌 가치를 재확인하며 마무리함.)

- 신경림, 「산에 대하여」

(다)

달사는 이상할 것이 없으나 속인은 의심스러운 것투성이다. 이른바 본 것이 적으면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많은 것이다.(사물의 이치를 통달한 '달사'와 식견이 좁은 '속인'을 대조하여, 경험과 식견의 차이가 인식의 차이를 만듦을 제시함. (가)의 '나'와 (다)의 '달사'를 비교하는 문제에서 "나"는 고통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하는 주관적 변용의 자세를, '달사'는 현상에 얽매이지 않고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의 자세를 지니고 있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사라고 해서 어찌 사물을 쫓아가며 눈으로 보았겠는가? 하나를 들으면 눈으로 열 가지를 떠올리고 열 가지를 보면 마음에 백 가지를 펼치고 보니 수많은 이상야릇한 것들은 도리어 사물에 붙은 것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은 한가롭고 여유가 있어 무궁무진하게 맞대응할 수 있다.

본 것이 적은 사람은 백로를 기준 삼아 까마귀를 비웃고 물오리를 기준 삼아 학의 긴 다리가 위태롭다고 생각한다.(자기의 좁은 소견과 고정 관념을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속인의 어리석은 태도를 구체적 사례(백로, 물오리)를 들어 비판함.) 사물 자체는 이상할 것이 없는데 저 혼자 의심해 화를 내며 한 가지라도 생각과 다르면 만물을 모조리 비방한다.

[아! 저 까마귀를 보라. 그 날개보다 더 검은색이 없긴 하나 얼핏 열은 황금색이 돌고, 다시 연한 녹색으로 반짝인다. 햇별이 비추면 자주색으로 솟구치다, 눈이 어른어른하면 비취색으로도 변한다. 그러므로 내가 비

록 푸른 까마귀라고 말해도 괜찮은 것이고 다시 붉은 까마귀라고 말해도 상관없는 것이다. 저 사물은 본디 정해진 색이 없는데도 내가 눈으로 먼저 정해 버리는 것이다.]([: 빛의 각도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는 까마귀의 색을 예로 들어, 대상을 고정된 시각('검다')으로만 규정하려는 선입견의 오류를 지적함. (나의 '높은 산'과 (다)의 '검은색'을 비교하는 문제에서 "높은 산'과 '검은색'은 모두 대상을 한 가지 잣대로만 평가하려는 사람들의 고정 관념이 투영된 소재이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어찌 그 눈에서만 판정할 따름이라? 보지도 않으면서 마음속에서 미리 판정해 버린다. 슬프다! 까마귀를 검은색으로 고정한 것도 충분한데 다시금 까마귀를 갖고 세상의 온갖 색을 고정하려 하는구나. 까마귀가 과연 검기는 하다. 그러나 누가 다시 이른바 푸르고 붉은 색이 검은색 안에 깃들어 있는 빛깔인 줄 알겠는가?

[검은 것을 일러 어둡다고 하는 자는 비단 까마귀를 알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검은색도 모르는 것이다. 왜냐? 물은 깊고 그윽하기 때문에 비출 수 있고, 옷칠은 검기 때문에 비춰 볼 수 있는 것이다.]([: 검은색의 속성(사물을 비춤)을 재해석하여, 현상 너머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피상적 인식을 비판하고 깊이 있는 통찰을 강조함.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지 묻는 문제에서 "(다)에서 '물은 깊고 그윽하기 때문에 비출 수 있고'라는 것은, 현상의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본질을 파악해야만 대상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군."과 같은 옳지 않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은색=어둡다'라는 고정 관념을 비판하며 검은색이라는 현상 안에도 '비춤'이라는 속성이 있음을 재해석하는 내용이 지, 변화 속의 불변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빛깔이 있는 것엔 빛이 있지 않은 것이 없고, 형체가 있는 것엔 자태가 있지 않은 것이 없다.

[미인을 관찰하면 시를 알 수 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은 부끄러워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턱을 받치고 있는 것은 한스러워함을 나타낸다.(글쓴이의 관점을 묻는 문제에서 "시의 문체는 미인의 자태와 같아져 한 가지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주될 때 비로소 묘미를 얻는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홀로 서 있는 것은 누군가 그리워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눈썹을 찌푸리는 것은 근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기다리는 바가 있으면 난간 아래 서 있는 모습으로 보여 주고, 바라는 바가 있으면 파초 아래 서 있는 모습으로 보여 준다. 만약 다시 그녀에게 서 있는 모습이 재계한 것처럼 단정하지 않다고 나무라거나 앉은 모습이 불상처럼 가부좌가 아니라고 나무란다면, 이는 양 귀비에게 치통을 앓는다고 꾸짖고, 변희에게 쪽 찢 머리를 감싸 쥐지 말라고 금하며, 사뿐사뿐한 걸음걸이를 요염하다고 조롱하고, 손뼉 치며 추는 춤을 가볍다고 꾸짖는 격이다.]([: 미인의 자태가 상황과 감정에 따라 다양하듯, 시(문학) 또한 하나의 형식이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하게 표현되어야 함을 유추를 통해 설파함.)

나의 조카 종선은 자가 계지인데 시를 잘 썼다. 한 가지 법에 매이지 않고 온갖 시체를 두루 갖추었으니, 우뚝이 동방의 대가가 된다.(조카 종선의 시가 특정한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무쌍하고 유연함을 칭찬하며, 이것이 진정한 '대가'의 면모임을 밝힘.) 성당의 시인이 싶어 보면 어느새 한위의 시체를 띠고 또 홀연 송명의 시체를 띤다. 겨우 송명체라고 말하려니 다시 성당의 시체를 띠고 있다.

아! 세상 사람들이 까마귀를 비웃고 학을 위태롭게 여기는 것이 또한 너무 심하다. 그러나 계지의 동산에는 까마귀가 문득 푸르렀다 붉었다 한다.(세상 사람들의 편협한 시각을 탄식하며, 이와 대조적으로 종선은 열린 사고와 유연한 관점을 지니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함.) 세상 사람들은 미인을 재계하는 모습이나 불상처럼 만들고 싶어 하나, 손뼉 치며 추는 춤과 사뿐사뿐한 걸음걸이는 날이 갈수록 가볍고 요염해지고 쪽 찢 머리를 감싸 쥐거나 치통을 앓는 모습은 모두 각기 자태를 갖추고 있으니, 그 성내고 화를 내는 것이 심해질 것임은 의심할 바 없다.

세상에 달사는 적고 속인은 많다. 그러니 침묵하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 그런데도 말을 그칠 수 없는 것은 왜일까? 아! 연암 노인이 연상각에서 쓴다.

- 박지원, 「능양시집 서」

(가) 「낙원은 가시덤불에서」

핵심 정리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사색적, 불교적, 역설적
- 주제: 자연의 순환 질서를 통해 깨달은 인생의 진리와 고통 승화
- 특징
 - 자연 현상(계절의 순환)에서 인생의 깨달음을 얻는 유추적 발상이 돋보임.
 - ‘~습니다’, ‘~아십니까’ 등의 경어체를 사용하여 경건함을 드러냄.
 - 역설적 표현을 통해 고통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주제 의식을 형상화함.

이해와 감상

이 시는 한용운 특유의 불교적 세계관과 역설적 인식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화자는 겨울 눈이 봄꽃을 피우고, 여름의 녹음이 가을 단풍을 만든다는 자연의 순환 섭리를 관찰한다. 이를 통해 ‘일경초’와 ‘장륙금신’이 다르지 않다는 평등 사상과, 만물이 한 보금자리라는 깨달음에 도달한다. 결국에서는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현재의 이별과 고통(가시덤불)이 미래의 환희(낙원)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인식하며, 역설적으로 ‘행복’을 선언한다.

(나) 「산에 대하여」

핵심 정리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교훈적, 비유적, 향토적
- 주제: 낮은 산을 통해 깨달은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와 소중함
- 특징
 - ‘산’을 의인화하여 인간의 삶에 빗대어 표현함.
 - ‘높은 산’과 ‘낮은 산’의 대조를 통해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부각함.
 - 유사한 통사 구조와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주제를 강조함.

이해와 감상

이 시는 ‘높은 산’과 ‘낮은 산’의 대비를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를 노래한다. 화자는 일반적으로 우러러보는 크고 높은 산 대신, 마을 가까이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낮은 산’에 주목한다. 낮은 산은 가난하고 누추해 보이지만, 타인에게 길을 내어주고 쉼 곳을 제공하며, 사소한 자연물과 어우러지는 기쁨을 아는 존재이다. 이는 힘과 권력을 지향하는 삶보다, 이웃과 더불어 소박하게 살아가는 ‘민중적 삶’의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예찬한 것이다.

(다) 「능양시집 서」

핵심 정리

- 갈래: 한문 수필, 서
- 성격: 비평적, 교훈적, 비유적, 철학적
- 주제: 고정 관념 타파와 대상을 바라보는 유연하고 올바른 인식 태도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갈래복합 06 | 낙원은 가시덤불에서, 산에 대하여, 능양시집 서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죽은 줄 알았던 매화나무 가지에, 구슬 같은 꽃방울을 맺혀 주는 쇠잔한 눈 위에, 가만히 오는 봄기운은 아름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밖에 다른 하늘에서 오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모든 꽃의 죽음을 가지고 다니는 쇠잔한 눈이 주는 줄을 아십니까.

구름은 가늘고 시냇물은 열고 가을 산은 비었는데, 파리한 바위 사이에 실컷 붉은 단풍은 곱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풍은 노래도 부르고 울음도 읊니다. 그러한 ‘자연의 인생’은 가을바람의 꿈을 따라 사라지고 기억에만 남아 있는, 지난여름의 무르녹은 녹음이 주는 줄을 아십니까.

일경초가 장륙금신이 되고, 장륙금신이 일경초가 됩니다.

천지는 한 보금자리요, 만유는 같은 소조입니다.

나는 자연의 거울에 인생을 비춰 보았습니다.

고통의 가시덤불 뒤에, 환희의 낙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님을 떠난, 나는 아아 행복입니다.

- 한용운, 「낙원은 가시덤불에서」

(나)

산이라 해서 다 크고 높은 것은 아니다

다 험하고 가파른 것은 아니다

어떤 산은 크고 높은 산 아래

시시덕거리고 웃으며 나지막이 엮드려 있고

또 어떤 산은 험하고 가파른 산자락에서

슬그머니 빠져 동네까지 내려와

부러운 듯 사람 사는 꼴을 구경하고 섰다

그리고는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순하디순한 길이 되어 주기도 하고

남의 눈을 꺼리는 젊은 쌍에게 짐짓

따뜻한 사랑의 숨을 자리가 되어 주기도 한다

그래서 낮은 산은 내 이웃이던

간난이네 안방 왕골자리처럼 때에 절고

그 누더기 이불처럼 지린내가 배지만

눈개비나무 찰피나무며 모깃대 개쪽에 덮여

곤줄박이 개개비 휘파람새 노랫소리를

듣는 기쁨은 낮은 산만이 안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서 잡아 죽일 듯

이빨을 갈고 손톱을 세우다가도

침냉쿨처럼 머루 냉쿨처럼 감기고 어우러지는

사람 사는 재미는 낮은 산만이 안다

㉠사람이 다 크고 잘난 것만이 아니듯

다 외치며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듯

산이라 해서 모두 크고 높은 것은 아니다

모두 흰 구름을 겨드랑이에 끼고

어깨로 바람 맞받아치며 사는 것은 아니다

- 신경림, 「산에 대하여」

(다)

달사는 이상할 것이 없으나 속인은 의심스러운 것 투성이다. 이른바 본 것이 적으면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달사라고 해서 어찌 사물을 쫓아가며 눈으로 보았겠는가? 하나를 들으면 눈으로 열 가지를 떠올리고 열 가지를 보면 마음에 백 가지를 펼치고 보니 수많은 이상아릇한 것들은 도리어 사물에 붙은 것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은 한가롭고 여유가 있어 무궁 무진하게 맞대응할 수 있다.

본 것이 적은 사람은 백로를 기준 삼아 ㉠까마귀를 비웃고 물오리를 기준 삼아 학의 긴 다리가 위태롭다고 생각한다. 사물 자체는 이상할 것이 없는데 저 혼자 의심해 화를 내며 한 가지라도 생각과 다르면 만물을 모조리 비방한다.

아! 저 까마귀를 보라. 그 날개보다 더 검은색이 없긴 하나 얼핏 옅은 황금색이 돌고, 다시 연한 녹색으로 반짝인다. 햇별이 비추면 자주색으로 솟구치다, 눈이 어른어른하면 비취색으로도 변한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푸른 까마귀라고 말해도 괜찮은 것이고 다시 붉은 까마귀라고 말해도 상관없는 것이다. 저 사물은 본디 정해진 색이 없는데도 내가 눈으

로 먼저 정해 버리는 것이다. 어찌 그 눈에서만 판정할 따름이라? 보지도 않으면서 마음속에서 미리 판정해 버린다. 슬프다! 까마귀를 검은색으로 고정된 것도 충분한데 다시금 까마귀를 갖고 세상의 온갖 색을 고정하려 하는구나. 까마귀가 과연 검기는 하다. 그러나 누가 다시 이른바 푸르고 붉은 색이 검은 색 안에 깃들여 있는 빛깔인 줄 알겠는가?

검은 것을 일러 어둡다고 하는 자는 비단 까마귀를 알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검은색도 모르는 것이다. 왜냐? 물은 깊고 그윽하기 때문에 비출 수 있고, 옷칠은 검기 때문에 비춰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빛깔이 있는 것엔 빛이 있지 않은 것이 없고, 형체가 있는 것엔 자태가 있지 않은 것이 없다.

㉠[㉠미인을 관찰하면 시를 알 수 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은 부끄러워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턱을 받치고 있는 것은 한스러워함을 나타낸다. 홀로 서 있는 것은 누군가 그리워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눈썹을 찌푸리는 것은 근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기다리는 바가 있으면 난간 아래 서 있는 모습으로 보여 주고, 바라는 바가 있으면 파초 아래 서 있는 모습으로 보여 준다. 만약 다시 그녀에게 서 있는 모습이 재계한 것처럼 단정하지 않다고 나무라거나 앓은 모습이 불상처럼 가부좌가 아니라고 나무란다면, 이는 양 귀비에게 치통을 앓는다고 꾸짖고, 번희에게 쪽 찌 머리를 감싸 쥐지 말라고 금하며, 사뿐사뿐한 걸음걸이를 요염하다고 조롱하고, 손뼉 치며 추는 춤을 가볍다고 꾸짖는 격이다.

나의 조카 ㉡종선은 자가 계지인데 시를 잘 썼다. 한 가지 법에 매이지 않고 온갖 시체를 두루 갖추었으니, 우뚝이 동방의 대가가 된다. 성당의 시인이 싶어 보면 어느새 한위의 시체를 띠고 또 홀연 송명의 시체를 띤다. 겨우 송명체라고 말하려니 다시 성당의 시체를 띠고 있다.

아! 세상 사람들이 까마귀를 비웃고 학을 위태롭게 여기는 것이 또한 너무 심하다. 그러나 계지의 동산에는 까마귀가 문득 푸르렀다 붉었다 한다. 세상 사람들은 미인을 재계하는 모습이나 불상처럼 만들고 싶어 하나, 손뼉 치며 추는 춤과 사뿐사뿐한 걸음걸이는 날이 갈수록 가볍고 요염해지고 쪽 찌 머리를 감싸 쥐거나 치통을 앓는 모습은 모두 각기 자태를 갖추고 있으니, 그 성내고 화를 내는 것이 심해질 것임은 의심할 바 없다.

세상에 달사는 적고 ㉢속인은 많다. 그러니 침묵

하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 그런데도 말을 그칠 수 없는 것은 왜일까? 아! ㉣연암 노인이 연상각에서 쓴다.

- 박지원, 「능양시집 서」

1. (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을 환기하고 있다.
- ③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자연물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청각적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전이하여 대상의 속성을 공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시는 소멸과 생성이 둘이 아니라는 불교적 연기설을 바탕으로 한다. 화자는 거울의 '쇠잔한 눈'이 봄의 '꽃방울'을, 여름의 '녹음'이 가을의 '단풍'을 가져온다는 사실에서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순환함을 깨닫는다. 이러한 인식은 고통과 환희 또한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으로 확장되어, 화자가 고통 속에서도 행복을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① '죽은 줄 알았던 매화나무 가지'에 '꽃방울'이 맺히는 모습은 소멸 속에 생성이 내재해 있음을 보여준다.
- ② '모든 꽃의 죽음'을 가지고 다니는 '쇠잔한 눈'에서 '알 수 없는 향기'를 맡는 것은 죽음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한 결과이다.
- ③ '일경초가 장륙금신이 되고, 장륙금신이 일경초가' 된다는 것은 만물의 위계가 무너진 혼란스러운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것이다.

- ④ ‘천지는 한 보금자리요, 만유는 같은 소조’라는 진술은 만물이 서로 구분되지 않고 본질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 ⑤ ‘고통의 가시덤불’ 뒤에 ‘환희의 낙원’이 있다는 것은 고통이 단순히 회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환희와 연결된 과정임을 역설한 것이다.

3. (나)의 ‘낮은 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파괴되어 가는 자연의 비극적 모습을 대변한다.
- ② 높은 산을 동경하여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상승하려는 욕망을 지닌다.
- ③ 인간 세상과 단절된 채 순수한 자연의 질서를 고수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 ④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의 곁에서 그들을 포용하고 위로하는 존재이다.
- ⑤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세상을 지배할 강력한 힘을 숨기고 있다.

4. (나)의 ㉠과 <보기>의 ㉡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고 골짜기가 깊으면 그림자가 짙다. 높은 산에 사는 매는 시퍼런 하늘만 쪼고 있지만 낮은 산에 사는 뱀새는 덩굴 속에 ㉡오순도순 깃들여 산다

- ① ㉠은 인간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은 소박한 삶의 공동체적 가치를 보여준다.
- ② ㉠은 ‘높은 산’만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님을, ㉡은 ‘높은 산’이 갖지 못한 ‘낮은 산’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한다.
- ③ ㉠과 ㉡은 모두 외형적인 크기나 높이보다 내실 있는 삶의 방식을 옹호하고 있다.
- ④ ㉠은 부정적 현실을 타개하려는 의지를, ㉡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태도를 경계하는 인식을 담고 있다.
- ⑤ ㉠은 (나)의 ‘흠닝쿨처럼’ 어우러지는 모습과 통하고, ㉡은 (나)의 ‘곤줄박이 개개비 휘파람새 노랫소리’와 유사하다.

5. (다)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보기>에 대해 반박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어떤 비평가: 시(詩)란 모름지기 성당(盛唐)의 시풍을 따라야만 비로소 법도에 맞는다 할 수 있다. 송명(宋明)이나 한위(漢魏)의 잡다한 문체를 섞어 쓰는 것은 시의 순수성을 해치는 일이니 마땅히 배격해야 한다.

- ① “진정한 시인은 법도를 따르되, 그 안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야 하므로 잡다한 문체를 섞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 ② “시의 문체는 미인의 자태와 같아서 한 가지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주될 때 비로소 묘미를 얻는다.”
- ③ “성당의 시풍은 이미 낡은 것이니, 오직 새로운 송명과 한위의 시풍만을 따르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길이다.”
- ④ “시는 본래 사물의 형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므로 문체보다는 대상의 색채와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 ⑤ “시를 짓는 일은 마음을 비우는 과정이므로 특정한 시풍을 따르면서 침묵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 우선이다.”

6. ㉢~㉥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본질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나 사람들의 선입견에 의해 한 가지 속성으로 규정되는 대상이다.
- ② ㉣: 관찰하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와 정서를 표출할 수 있는 존재이다.
- ③ ㉤: 기존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시체를 운용하여 독자적인 경지에 이른 인물이다.
- ④ ㉥: 자신의 좁은 식견을 기준으로 대상을 재단하며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 ⑤ ㉥: 세상을 등지고 은거하며 자신의 능력을 감추고 살아가는 겸손한 태도를 지닌 화자이다.

7. (나)의 시상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산의 외형적인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묘사하여 인생의 무상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산에 대한 통념을 부정한 후, 낮은 산의 구체적 속성을 열거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산을 관조적인 자세로 바라보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④ 산의 웅장한 모습을 예찬하며 자연의 위대함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 ⑤ 산과 관련된 고사를 인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8.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신경림의 시에서 ‘산’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민중들의 삶의 터전이자 민중 그 자체를 상징한다. 특히 ‘낮은 산’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공동체적 연대 의식을 지닌 존재이다. 시인은 이를 통해 크고 화려한 것만을 좇는 세태를 비판하고,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이 지닌 생명력과 가치를 옹호한다.

- ① ‘가난이네 안방 왕골자리처럼 때에 절고’라는 표현은 낮은 산이 민중들의 고단한 삶과 밀착되어 있는 친근한 존재임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 ② ‘사람들이 서로 미워서 잡아 죽일 듯 / 이빨을 갈고 손톱을 세우다가도’는 민중들의 삶 속에 내재된 갈등과 치열한 생존 경쟁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 ③ ‘침낭쿨처럼 머루 넝쿨처럼 감기고 어우러지는’ 모습은 갈등을 넘어 서로 화해하고 공존하는 민중 공동체의 건강한 생명력을 비유한 것이다.
- ④ ‘곤줄박이 개개비 휘파람새 노랫소리’를 듣는 기쁨은 낮은 산만이 안다는 것은, 소박한 삶 속에서 느끼는 행복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음을 강조하여 배척한 것이다.

- ⑤ ‘모두 흰 구름을 겨드랑이에 끼고 / 어깨로 바람 맞받아치며 사는 것은 아니다’는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삶만이 가치 있는 삶은 아니라는 작가의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9. (다)의 글쓰기가 <보기>의 상황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A: 이 그림 속 대나무는 색깔이 붉으니 잘못 그린 것이네. 세상에 붉은 대나무가 어디 있는가? 대나무는 응당 푸른색이어야 하네.

B: 그렇지 않습니다. 화가가 붉은 먹으로 그렸으니 붉은 대나무가 된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푸른색에만 집착하면 대나무의 참모습을 그릴 수 없습니다.

- ① A에게: “자네 말이 옳네. 대나무의 본질은 푸름에 있으니, 붉은색으로 대나무를 표현한 것은 사물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이라네.”
- ② A에게: “자네는 자네 마음속에 있는 것만 믿고 경험으로 판단하려 하지 않는군. 경험을 무시하고 푸른 대나무만 고집하는 것은 까마귀를 검게만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네.”
- ③ B에게: “자네는 붉은색이 검은색 안에 깃들어 있음을 모르는구먼. 진정한 화가라면 색채에 얽매이지 말고 형체에 집중해야 하네.”
- ④ B에게: “자네의 생각은 달사와 같네.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색채라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야 사물의 본질에 자유롭게 다가갈 수 있는 법이지.”
- ⑤ A와 B에게: “두 사람 모두 틀렸네. 대나무는 본래 색이 없는 것이니, 마음속에 이미 정해진 색을 지우고 바라보아야 비로소 참모습이 보인다네.”

10. (다)의 논지 전개 방식을 고려할 때, ㉠의 구체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인의 아름다움이 외모가 아닌 내면의 덕성에서 나오듯, 시 또한 화려한 수사보다는 시인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야 감동을 줄 수 있다.
- ② 미인이 상황과 감정에 따라 다양한 자태를 취하듯, 시 또한 정해진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주제와 상황에 맞게 다양한 문체를 활용해야 한다.
- ③ 미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관찰자에게 다른 의미로 해석되듯, 시 또한 독자의 관점과 경험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개방성을 지녀야 한다.
- ④ 미인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듯, 시인 또한 완성도 높은 시를 쓰기 위해 끊임없이 퇴고하고 정진해야 한다.
- ⑤ 미인이 겉모습만으로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없듯, 시 또한 겉으로 드러난 표현 이면에 숨겨진 함축적 의미를 파악해야 진가를 알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②

‘~아십니까’라는 의문형 어미를 반복하여 쇠잔한 눈이 꽃방울을 맺게 하고 지난여름의 녹음이 단풍을 만든다는 자연의 순환적 섭리를 강조했다.

- ① 동일한 종결 어미는 반복되지만 동일한 시구가 반복되어 의지를 강조하는 부분은 없다.
- ③ 겉과 속이 다른 반어적 표현이 아니라 모순된 상황에서 진리를 찾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 ④ 시선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으며 대상의 속성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주를 이룬다.
- ⑤ 감각적 이미지는 활용되었으나 청각의 시각화와 같은 공감각적 심상은 사용되지 않았다.

2. [정답] ③

미물인 ‘일경초’와 거룩한 ‘장륙금신’이 서로 변한다는 것은 만물이 본질적으로 평등하며 순환한다는 불교적 연기설을 의미하므로 비판적 시각과는 거리가 멀다.

- ① 죽은 듯한 가지에 꽃이 피는 현상은 소멸과 생명이 순환한다는 <보기>의 설명과 부합한다.
- ② 꽃을 죽이는 눈이 향기를 가져온다는 것은 죽음이 곧 새로운 생명의 시작임을 인식한 것이다.
- ④ 천지와 만유가 한 보금자리이자 같은 소조라는 것은 모든 존재의 본질적 일체감을 표현한 것이다.
- ⑤ 고통을 통해 환희를 건설한다는 것은 고통과 행복이 순환의 고리 속에 있음을 깨달은 태도이다.

3. [정답] ④

낮은 산은 동네까지 내려와 사람 사는 꼴을 구경하고 남의 눈을 꺼리는 사람들에게 숨을 자리를 내어 주는 등 민중의 삶을 포용하는 존재이다.

- ① 낮은 산은 인간에 의해 파괴되는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어우러지는 긍정적 대상이다.
- ② 낮은 산은 높은 산을 부러워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모습이 아니라 독자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로 그려진다.
- ③ **[매력적인 오답]** 낮은 산은 동네까지 내려와 사

람들과 어우러지므로 세상과 단절된 존재가 아니다.

- ⑤ 낮은 산은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소박한 삶의 기쁨과 사람 사는 재미를 아는 존재이다.

4. [정답] ④

㉠은 획일적인 가치관을 거부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은 소박하게 어울려 사는 삶을 긍정하는 것이지 현실 타개나 안주를 경계하는 내용이 아니다.

- ① ㉠은 크고 잘난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다양성을, ㉡은 함께 모여 사는 어울림의 가치를 보여준다.
- ② ㉠과 ㉡ 모두 높고 큰 것보다 낮고 작더라도 의미 있는 삶의 공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 ③ 두 구절 모두 외적인 위용보다는 내면의 조화로움과 관계 맺음을 중시하는 태도가 깔려 있다.
- ⑤ ㉠은 칠펙쿨처럼 사람도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진다는 것을 보여주며, ㉡은 곤줄박이 개개비 등의 노랫소리처럼 다양한 새들이 오순도순 깃들여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과 ㉡ 모두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민중들의 조화로운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5. [정답] ②

글쓴이는 미인이 다양한 자세로 감정을 표현하듯 시 또한 한 가지 법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시체를 두루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획일성을 비판할 것이다.

- ① 글쓴이는 조카 종선이 여러 시체를 섞어 쓰는 것을 칭찬했으므로 문체의 혼용을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 ③ 글쓴이는 특정 시풍만이 옳다는 것을 경계했지만 성당의 시풍을 낡은 것으로 치부하거나 다른 시풍만을 옹호하지 않았다.
- ④ 이 글은 대상의 외양 묘사를 정확히 하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고정 관념을 탈피한 유연한 인식과 표현의 다양성을 강조했다.
- ⑤ 글쓴이는 침묵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도 말을 그칠 수 없는 이유를 밝히며 자신의 생각을 글로 피력하고 있으며, 특정 시풍을 따르라고 말하지 않았다.

6. 정답 ⑤

‘연암 노인’은 글쓴이 자신을 지칭하며 세상의 편견에 맞서 깨달음을 전하려는 의지를 지닌 인물이지 능력을 감추고 은거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다.

- ① 까마귀는 빛에 따라 다양한 색을 띠지만 사람들은 검은색으로만 규정하려 한다.
- ② 미인은 고개 숙임, 턱 받침 등 다양한 동작으로 부끄러움, 한스러움 등 여러 정서를 표현한다.
- ③ 종선은 한 가지 법에 매이지 않고 온갖 시체를 두루 갖추어 동방의 대가로 칭송받는다.
- ④ 속인은 본 것이 적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고 자신의 기준과 다르면 비방하는 태도를 보인다.

7. 정답 ②

시의 초반부에서 ‘산이라 해서 다 크고 높은 것은 아니다’라며 통념을 부정한 뒤, 중반부에서 낮은 산이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속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낮은 산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① 낮은 산의 모습과 의미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을 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산의 외형적 변화나 인생의 무상함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 ③ 화자는 산을 멀리서 관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낮은 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며 그 가치를 역설하고 있다.
- ④ 이 시는 크고 높은 산의 웅장함을 예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고 낮은 산이 지닌 포용력과 생명력을 긍정적으로 재조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⑤ 낮은 산의 속성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나, 산과 관련된 옛이야기나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8. 정답 ④

낮은 산만이 그 기쁨을 안다는 것은 소박한 삶의 가치를 강조하는 표현이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을 전혀 알 수 없다고 단정하거나 그들을 배척하는 의미는 아니다.

- ① ‘때에 절고’와 같은 이미지는 낮은 산이 고상하고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가난한 민중들의 생활 현장 속에 깊이 들어와 있음을 보여준다.
- ②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모습은 이상화

된 평화로운 모습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민중들의 실제 삶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다.

- ③ 넝쿨이 서로 얽혀 있는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다툼 뒤에도 다시 어우러져 살아가는 민중들의 끈끈한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 ⑤ 흰 구름과 바람을 맞받아치는 높은 산의 모습은 외형적 성취를 중시하는 삶을 상징하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진술은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제 의식을 담고 있다.

9. 정답 ④

글쓴이는 까마귀의 색이 빛에 따라 변하듯 고정된 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대나무가 붉을 수도 있다는 유연한 사고를 가진 B의 태도를 ‘달사’에 비유하며 긍정할 것이다.

- ① 글쓴이는 까마귀를 겹겹만 보는 태도를 비판했으므로, 대나무가 무조건 푸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A의 태도를 옹호하지 않고 오히려 비판할 것이다.
- ② [매력적인 오답] A는 자신의 경험 또는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한 고정 관념으로 대상을 판단하는 사람이므로, 경험을 무시했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
- ③ 글쓴이는 형체가 있는 것엔 자태가 있고 빛깔이 있는 것엔 빛이 있다고 했으므로, 색채를 무시하고 형체에만 집중하라는 조언은 글의 논지와 맞지 않는다.
- ⑤ 글쓴이는 사물에 정해진 색이 없는데 눈으로 정해 버리는 것을 경계했으나, B는 이미 고정된 색채 관념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B까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0. 정답 ②

글쓴이는 미인이 부끄러울 때 고개를 숙이고 그리울 때 홀로 서 있는 등 감정에 따라 자태가 달라지는 것을 예로 들어, 시 역시 한 가지 시체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시체를 자유롭게 구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① 내면의 덕성을 강조하는 윤리적 관점이 아니라, 표현 양식(문체, 자태)의 다양성과 가변성을 강조하

는 예술론적 관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독자의 수용 관점에 따른 해석의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가 상황에 맞게 다양한 형식을 취해야 한다는 창작론적 관점을 다루고 있다.

④ 미인의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미인이 자연스럽게 취하는 다양한 자태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근거로 시체의 다양성을 옹호하는 내용이다.

⑤ **[매력적인 오답]** ㉠은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획일적인 기준으로 대상을 재단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문맥에서 쓰였다.